

#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도교육청, '수요일은 다 먹는 날' 등 잔반 없는 날 지정·운영

AI기반 푸드스캐너 시범학교도 운영... 올해 10곳 추가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AI 기반 푸드스캐너 도입 등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안내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화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먼저, 식생활 교육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편식교정 등 식사지도로 음식물 남기지 않기 교육, 학생 개인별 식사량 조절을 위한 조절대 비치, 영양교육·가정통신문·급식계시판 등을 활용한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매주 '수요일은 다 먹는 날' 등 잔반 없는 날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양(교)사가 학생들의 선호도와 영양을 고려해 진반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품과 조리법을 활용하도록 교사연수 및 학교 컨설팅도 강화했다.

식판 스캔만으로도 학생들의 메뉴별 기호도에 따른 섭취량과 진반량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AI기반 푸드스캐너 시범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10개 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도 학교의 신청을 받아 10개 학교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급식메뉴 구성시 학생들의 기호도를 반영하고, 반복적인 음식물쓰레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어느 학교에 도입된 푸드스캐너.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이서기 문예체전강과장은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실태조사 및 실효성 있는 저감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학생

들에게 식생활 교육과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탄소 환경급식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LINC 3.0사업단

### 디와이이노베이트와 '맞손'

전북대학교 LINC 3.0사업단(단장 송철규)이 지난 3일 (주)디와이이노베이트와 손을 맞잡았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및 국가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전문기술인 양성과 관련 기업체의 기술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에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기술교류회에서는 (주)디와이이노베이트의 임직원들과 전북대학교 우수 보유 기술을 가진 교수들이 참여해 기업 애로사항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과 기술협력의 의지를 내쳤다.

그간 전북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주)디와이이노베이트는 유료 재직자 교육, 현장실습 등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을 수행했다. 이번 행사로 산학교류를 통한 기업의 기술 확보 등 교내 우수 보유 연구 기술 기반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철규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 기관은 지역 기업에게 자사의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전북대학교는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4일 2023년 전라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가 열리고 있는 전주공업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

## "학생들 우수한 실력, 산업현장에 널리 활용토록 지원"

### 서거석 교육감, 전북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학생 격려

서거석 교육감이 4일 2023년 전라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주공업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

전라북도기능경기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 대회는 전주공고 등 9개 경기장에서 직업계고 학생과 일반인 등 2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7일까지 닷새 동안 펼쳐진다.

기계, 금속·수송, 전기·전자, 건축·목재, IT·디자인, 공예·의류, 미예 등 7개 분과 33개 직종으로 나눠 치러진다.

전주공고 13명, 전북기계공고 23명, 강호항공고 33명, 한국계인과학고 21명 등 직업계고 학생 150여 명은 21개 직종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한편 이번 대회 입상자는 오는 10월 14일 충남에서 개막하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서 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미래의 산업에 대비해 현장의 기술과 첨단 기능을 연마하고 실력을 겨루는 의미있는 자리"라면서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우수한 실력이 산업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2023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도교육청, 조리실무사·교육복지사 등 4개 직종 221명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험의 선발 인원은 4개 직종에 221명으로 직종별로는 조리실무사가 167명으로 가장 많다. 이 외에 교무실무사 5명, 교육복지사 4명, 특수교육지도사 45명 등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12~14일 사흘간 교육공무직원 채용 원서제출시스템

(<http://www.je.gkr/eduwaker>) 응시원서 제출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온라인 원서 제출이 어려운 응시자를 위한 원서제출지원서비스가 전북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과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진다.

이후 도교육청은 5월 13일 1차 필기시험(소양평가)과 6월 17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6월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16일까지 도민 제안 공모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소장 한봉순)는 2023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선정,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도민 제안을 오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제안된 외에는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현업 기관의 지원을 연계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수립된 세부 실행계획을 대상으로 그간의 시행은 전북지역문제해

결 플랫폼(063-220-3165)으로 하면 된다.

한편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해 8월 출범,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 사업에 지원 및 인적, 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지역문제 제안은 <https://bit.ly/2023> 전북지역문제제안 혹은 별첨 외제공모포스터 하단의 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전북지역문제해

결 플랫폼(063-220-3165)으로 하면 된다.

한편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해 8월 출범,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 사업에 지원 및 인적, 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실행 외제공모에 집행위원회 심의를 통해 15개 내외의 실행 외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 몽골 대학과 교류 확대

### 김종구 주몽골대사관 특명전권대사

###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교류 방안 논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몽골 대학과의 교류가 보다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일 주몽골대사관 김종구 특명전권대사가 양오봉 총장을 찾아 양국 대학



지난 3일 김종구 주몽골대사관 특명전권대사(사진 오른쪽)가 전북대를 찾아 양오봉 총장과 교류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승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 전북대와 몽골의 우수 대학들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 대학이 글로벌 Top 100으로 나

이날 김 대사는 전북대가 전북의 대표 거점대학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플래그십 대학'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에 공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종구 대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전북대학교의 모

아가기 위해서는 외국 우수 대학들과의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몽골 대학과의 협력 방안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벌 Top 100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 우수 대학들과의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몽골 대학과의 협력 방안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교사지원단 구성

# 환경교육 리더 역할 담당

### 오리엔테이션 열고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등 논의

### 연구 분과 세분화·지속 정책 발굴에 힘쓰기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환경교육 지원을 위해 생태전환교육 교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의 생태 전환을 지원하는 교사 환경리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생태전환교육 교사지원단 29명을 선정, 4일 창조미래 3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생태전환교육 교사지원단은 학교의 환경리더로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전환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해 학교의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전북교육청 생태전환교육 대표 교사공동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날 교사지원단

에게 학교환경교육 지원 방향과 역할을 안내하고, 학교 현장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지원단 운영을 위해 생태전환교육 정책연구·생태전환교육과정 연구·환경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연구 분과를 세분화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다양한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정책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사지원단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정책 제안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교사지원단의 역할 강화로 학교환경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산학연 협력 도서지역 전기공급 문제 해결한다

### 전주대, 한전 고창지사·제이스에코와 소형풍력발전기 개발 착수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한국전력공사 및 (주)제이스에코와 공동으로 소형풍력발전기 개발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와 에너지 전문 스타트업인 (주)제이스에코와 함께 협업을 위한 소형풍력발전기 개발을 위한 T/F팀을 꾸렸다.

그동안 소형 풍력발전기는 건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심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이 집중됐으나, 미풍시 소형풍력발전기는 회전만 하고 전력 생산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상용화 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전주대는 전라북도의 에너지 전문 스타트업인 (주)제이스에코와 협력해 시스템을 구축,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특수 고안된 풍력발전기의 개발 및 시범운영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전주대학교 이정상 교수는 "플라이휠 기능 블레이드



는 미풍에서는 회전력을 저장하고, 시동풍속 이상이 되면 그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은 물론, 소형 풍력발전기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킹 토크(Cogging Torque)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 이상수 부장은 "소형 풍력발전기 개발 사업은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속 가능한 전기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가 가진 전력산업 분야의 책임 있는 리더의 역할을 통해 소형 풍력발전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정은성 기자